

성막이 완공되고 제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회막 문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겨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위임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은 7일 동안 거행되었습니다. 이제 8일째 되는 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먼저는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를 차례대로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물과 기름들을 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거룩하게 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어주는 중재자의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비롯한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향을 피워야 했으며 이 때 사용하는 향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불’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불법적인 불’ 또는 ‘이상한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법적이고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위임식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셔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번제물과 기름들을 살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 나답과 아비후에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한 자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19:2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뿐 아니라 벰전1:15 말씀에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대하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입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거룩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오해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 분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요(요10:36, 행3:14, 계3:7)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시고, 히10:10 에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죄와 분리 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더러움과 분리된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질 때만이 우리 인생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

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비로소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는 거룩하라”라든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거룩을 추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도무지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겨 지레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치르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묶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는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도리어 죄와 대적하여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롬6:19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아니 종종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즐겨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을 애통해하고 그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죄와 씨름한다고 거룩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씨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조금 막연하게 보입니다. 너무 광범위한 것이기 때

문입니다. 그것을 조금 구체화 시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대변되는 개인의 경건 생활이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딤후4:5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시고 또한 엡5:26 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 죄와 분리되고 구별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롬15:16 말씀에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살후2:13 말씀에도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먼저 내 자신이 전혀 거룩과는 상관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 마귀와 싸울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전념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